올 가을, 광화문서 태고영산문화축제 열린다

태고종, 3월 13일 신년기자회견
전통문화 계승 · 대사회 활동 강화
국내 · 외국인 대상 '시민명상센터'
중국불교계와 문화교류도 확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이 신도 1만명이 참여하는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봉행한다.

태고종 총무원장은 3월 13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2025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올 한 해 계획을 밝혔다. 태고종은 올해 '함께 하는 세상,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시대'를 슬로건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대사회 활동을 강화해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7회 태고세미나와 대중(對中) 불교문화교류 확대 △광화문 태고종 영산문화축제 및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 개최 △지역 유무형 문화재 콘텐츠 개발 활성화 △시민명상센터 개설 △사회복지재단설립 운영 등 5대 핵심 주요종책 과제를 추진한다.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

태고종은 10월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025 태고영산 문화축제를 연계한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영산재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고유한 문화형태로 보존 계승돼 온 것으로, 올해 4회를 맞았다. 태고종은 영산문화축제를 통해 한국 미래가 날로 새로워지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마련됐다. 국내외 불자 1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계법회에는 해동율맥 전수자인 수진 율사 스님과 대덕 증명 스님들이 법사로 나선다.

상진 스님은 "전법 의식은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체 정신에서 발로된다. 대승보살 수계법회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됐다"고 설명하며 "세계 각국 고승과 불자들이 동참하는 수계법회와 영산재를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선양하고 우리전통 불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좋은 법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대 핵심 주요종책 과제를 발표하고 "국민화합과 안정을 위해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對中) 불교문화교류 확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 교류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중국 불교계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한다. 올 상반기 중 불교 교류와 더불어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었던 태고보우 국사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하고 상호 협력하에 사업 추진을 해 나갈 방침이다.

상진 스님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국가 간 국제교류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정신을 배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교 세계화와 세계 불교인들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하는 세상을 이뤄가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활성화

태고종은 2024년 '태고문화유산전승사업단'을 신설해 전통 사찰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는 물론 종단 내 유무형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태고종에서 봉행하는 모든 불교의식 및 문화행사 활동에서 종교의 벽을 뛰어 넘어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 국내외에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념과 세대의 장벽을 허물고 소통과 화합, 마음 치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융합의 시대가 되도록 종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명상센터 개설

바쁜 일상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종교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태고종은 선 수행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을 위한 명상 체험과 수행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현녹지공원과 연계,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4층에 마련될 '태고 시민 명상센터'는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4월 운영 예정인 이곳은 태고종에서 전승·보존해가고 있는 불교의례를 활용해 염불, 소리, 생활 명상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전통문화 체험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태고종은 지자체 명상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과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갈망하고 요구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 종교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태고종 사회복지재단 운영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봉사와 후원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종단 산하 사회복지재단 및 복지법인 등을 통해 다양한 밀착형 사회 공헌 활동을 전대하고 건강한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사회복지법인 한국불교태고종 복지재단의 신규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나가고 종단 안팎의 복지 관련 타 단체들과 연계해 각종 지원사업을 펼쳐나간다. 아울러 종단 산하 국제 NGO를 통한 해외구호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상진 스님은 "올해 슬로건의 큰 주제인 '함께하는 세상'은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국민들이 갈라지고 사회가 대립구도로 가는 등 엄중한 시국을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염원이 담겼다"면서 "계층과 세대 간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미래를 지향하고 국민의 화합과 안정의 기반을 위해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불자회 대의원 총회…천년을 세우다 동참

2025년 사업계획 · 예산안 승인
불사 기금 1000만원 쾌척도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가 3월 12일 제2-1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쓰담순례 등 회원 활동을 비롯해 국제선명상대회와 같은 종단 주요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예산으로 3억 2671만8663원이 승인됐다. 세출분야는 전법, 교육, 종단 외호, 기관 운영 등이다.

2025년 세부사업계획안도 공유됐다. 전국여성불자회는 다양한 사업들로 여성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와 뭇생명을 쓰다듬는 '쓰담순례' 시즌 2는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개발한 순례 프로그램을 활용, 4월부터 4회에 걸쳐 연중 사업으로 진행된다. 한국불교의 맥과 흐름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4월 19일 대흥사 초의선사의 동다송 길 △6월 14일 신흥사 해맞이 가는 길 △9월 13일 송광사 법정 스님의 무소유 길 △11월 1일 해인사 소리길 방문이 예정돼 있다.



전국여성불자회가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1000만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푼다리카 아카데미'도 지난해에 이어 열린다. 연 2회 인문학 대중강연을 개최해 우리사회 불자여성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11월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제2회 김장은 축제다'를 개최한다. 김장 계승과 함께 나눔의 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구 및 직능 조직 지원 관리, 천년을 세우다와 아미타요양병원 등 종책 사업 기금 모연, 교계 내외 단체 연대, 좋은 불자되기 캠페인 등이 연중 내내 진행된다.

김의정 회장은 "올해는 종단조직개편을 통한 여러 변화가 있는 만큼, 조계종 여성 불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종단의 종책과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종단외호를 위해 힘쓰자"고 당부했다.

총회에 앞서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진우 스님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회 임원들을 한 명 한 명을 호명해 인사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불자들을 격려했다. 임은호 기자

"영국사지, 명상센터 건립으로 명소될 것"

오언석 도봉구청장, 진우 스님에 영국사지 복원계획 공유

조계종과 서울 도봉구가 고려시대 사찰이자 서울 유일 서원터인 영국사지(도봉서원)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3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오언석 도봉구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진우 스님에게 영국사지가 갖은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불교와 유교의 화합 상생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방안을 설명했다. 영국사지에는 출토 유물을 보존하는 유물전시관과 서원이 복원되며 명상센터도 함께 건립될 예정이다.

오 구청장은 "교통이 좋고 공기가 청정한 도봉산은 370여 만명이 다녀가는 명산으로 도봉산 초입에 위치한 영국사지에 전시관과 함께 명상센터가 건립되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며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불교와 유교의 상생화합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도봉산에 명상센터가 건립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종교가 달라도 이곳을 찾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명상은 마음을 맑게 하고 자기 힘을 기를 수 있는 실천 방법"이라며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 대법회에 이어 올해는 선명산 프로그램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내소사 다례재 및 해안대종사 추모제 안내

능가산 내소사는 633년 혜구두타 선사가 창건한 이후 설파, 백파, 설두 스님의 후예인 완성, 관해, 만허, 해안, 우암 등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면면히 불조의 혜명을 이어 수행정진 해왔습니다.

이에 내소사에서는 역대 조사 스님들의 다례재 및 해안대종사 51주기 추모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이번 다례재를 계기로 문도회를 창립하여 문도화합과 승가의 일원으로 거듭나 정진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불기2569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문도 일동

■ 다례재 및 추모제 봉행일시 : 불기2569년 4월 4일 (음. 3월 7일)

- **다례재** : 오전 10시, 부도전
- **추모제** : 오전 10시 50분, 대웅보전

■ **문도회의** : 4월 3일 오후 5시, 내소사 송풍회우